



Analyst 유승우 · 02-3773-9180 · yswbest@s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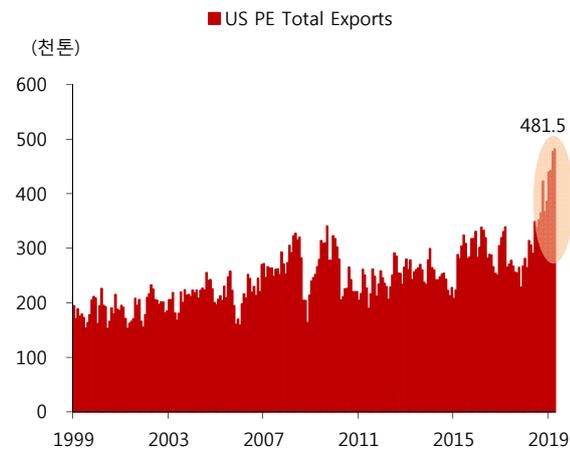
Issue Comment

- ✓ 미국의 4월 PE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재차 경신함
- ✓ 마침 미포도 Feeder급 컨테이너선을 선가를 올려 수주함
- ✓ 미국 수출이 지속 증가할 것이기에 미포의 수주는 계속될 것

미국 수출 데이터로 확인되는 Feeder급 컨테이너선 모멘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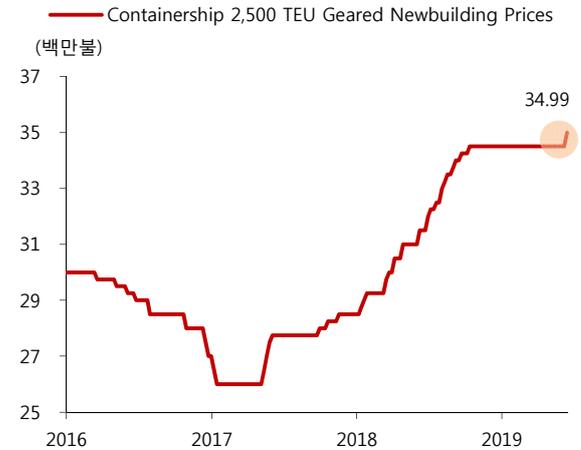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6월 3일 발간한 ‘SK Cyclical Bulletin Release 21_미포는 죽지 않았다’에서 미국의 화학 제품 수출 증가로 액체 형태의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MR 탱커와 고체 형태의 화학 제품을 운반하는 Feeder급 컨테이너선 발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최근 발표된 미국 4월 수출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4월 PE 수출량은 HDPE, LDPE, LLDPE, MDPE 합산 기준 481.5만톤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YoY +57.7%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현대미포조선은 2척의 Feeder급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는데 척당 약 3,500만불에 수주하며 선가를 올려서 수주했다. 기나긴 선가 협상 기간을 거치며 발주처들은 더 이상 발주를 미룰 수 없기에 선가 인상을 수용하는 분위기를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한다. 미국의 화학 제품 수출이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기에 선박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가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대미포조선은 Feeder급 컨테이너선과 MR 탱커의 선가를 올려가며 꾸준한 수주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4월 PE 수출량은 재차 사상 최대치 경신



자료 : USITC, SK 증권

마침 상승하기 시작한 Feeder급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자료 : Clarksons Research, Dart,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